

보도시점 2026. 6. 15.(월) 배포 즉시

고용노동부, 포스코 그룹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 그룹 차원의 실질적 안전대책 마련 및 현장에서의 작동성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6월 15일(월)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인화 포스코 그룹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그룹 경영진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그룹 차원의 강도 높은 경영 쇄신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포스코 그룹 참석자: 장인화 회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김상균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대표이사, 심민석 포스코DX 대표이사, 유인종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 대표이사

이는 지난 6.9.(화) (주)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김영훈 장관이 긴급 지시한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26.6.9.(화) 17:26경(신고) 서울시 관악구 소재 철도 공사현장 내 전기 배관실에서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1명)

면담에서 김영훈 장관은 (주)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 그룹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①위험 현장에 대한 본사의 안전투자 확대, ②현장 안전보건관리자의 고용불안, 낮은 처우 등 개선, ③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실질적인 안전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이에 장인화 회장은 ①안전 예산 확대, ②신안산선 현장의 안전 담당 인력 정규직화 및 증원 배치, ③현장 의견 수렴을 포함한 전 현장 안전관리 체계 재점검 등 그룹의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동일한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훈 장관은 “(주)포스코이앤씨나 포스코와 같이 특별히 위험한 현장은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고, 현장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라며 안전 투자 확대와 현장에서의 작동을 특히 당부하였다.

또한, “경영진 모두 안전한 일터가 기업의 생존 조건임을 인지하고, 포스코 그룹이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걸맞는 안전 경영의 모범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붙임. 포스코 그룹 경영진 간담회 개요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감독과	책임자	과 장	황효정	(044-202-8935)
		담당자	사무관	김성경	(044-202-8937)
			주무관	이재은	(044-202-8940)



☐ 일시: '26.6.15.(월) 10시~11시

☐ 장소: 정부세종청사 11동 소회의실(6층)

☐ 참석자

○ (우리부) 장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안전보건감독국장

○ (포스코그룹)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회장,

(주)포스코이앤씨, (주)포스코, (주)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주)포스코DX,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 대표이사

☐ 진행 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00~10:03	▪ 산재 노동자를 위한 묵념	사회: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10:03~10:10	▪ 모두 말씀	장관
10:10~10:30	▪ 중대재해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포스코 측
10:30~10:55	▪ 사망사고 재발방지 실천	참석자 전원
10:55~11:00	▪ 마무리 말씀 및 종료	장관